

## 그것은 고통중에 영근 찬양의 열매여라

김은숙

(본회 제주지부장 제주호스피스선교회 실무책임자)

이 글은 지난 2001년 12월 저희 제주호스피스에서 성탄감사예배 드리며 호스피스봉사 사례발표시간에 발표된 자원봉사자 강춘희 님의 글입니다. 저희 제주호스피스는 1997년 4월, 1기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아직까지는 병원산재형 호스피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척박한 땅에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사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봄의 향기가 아직은 코끝에 닿지 않은 듯 싸늘함을 느끼며 들어선 병실! 그 한 끝에 숨이 차 험뎠으며 고통스러워하는 한 젊은이. 그 날은 2001년 3월 8일. 눈꼬리가 매섭고 아예 우리의 관심과 대화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아들... 서른 네 살 진상완! 우리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봉사자들이 가까이 가면 화를 내고, 귀찮아 돌아누워 버리고 괜히 누구 때문에 내가 아픈 양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그러나 그 마음도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한 지극 정성으로 돌보는 총무님의 사랑과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진실이란 것을 몸으로 느끼고 부터였는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 한마디에서부터 기다리는 눈빛하며 어두웠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와

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말씀과 기도에 평화스러운 얼굴로 아멘하고 화답한. 기적같은 기쁘고 반가운 3월 31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처음 듣고,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그 날,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이셨겠지요?

만나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깊은 사قم이 있고부터 부모 없는 외로움도 장가 못한 후회스러움도, 훌훌 털어버리는 시간들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씨앗은 심겨지고 고통 중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4월 14일, 제주 영락교회 김성환 목사님의 인도아래 하나님의 참된 아들임을 인치는 세례를 받았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복된 이 날, 내가 세례를 받던 그 날도 그렇게 감격했었을까?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던 그가, 아픔을 참으며 병원 예배에 참석,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아픔을 참을 수 있었다는 고백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되려 위안을 얻고 돌아오곤 했었다.

복수가 차 오르고 금방 넘어 갈 듯한 호흡,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여름 8월 2일, 용인 생물의 집으로 그를 떠나 보내고 돌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엔 가슴 저미는 한기가 느껴지고, 손 흔들며 뒤돌아보던 물기 어린 눈매와 웃어 보이며 애쓰던 그 모습,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제주에도 시설 호스피스가 마련됐으면 이런 헤어짐은 없으려만... 기도 중에 위로 받고 전화로 안부 전하며 보냈던 시간이 두 달쯤. 10월 5일 오후, 그 아들이 샘물의 집에서 다시 한라병원 806호로 돌아왔다. 육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신앙은 많이 성숙되고 찬송 부르고 듣는 것을 힘든 중에도 원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말씀에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는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10월 10일 장기기증협회 시신기증각서에 서약하고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 고백하며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웃음으로 인사. 오후에 재민일보사의 취재 시 기자와의 대담에서 "오늘은 참 행복하고 즐거우며 내 생애 최고의 날인 것 같습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면 웃으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내 영정사진도 한 장 찍어주세요. 나는 남길만한 사진이 없거든요."라고 부탁. 영정사진과 봉사자들과의 사진도 기념으로 남겼다. 하루가 다르게 상태는 나빠지고 정신도 혼미해지기 시작. 10월 17일 독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조용한 곳에서 찬양 부르고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도 계셨고 말씀 안에서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18일 가끔 가끔씩 정신을 잃어갔다. 헛손질과 헛소리가 횡수를 더해가며,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할 뿐. 오 주님! 팔을 내미소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초조로움과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눈망울. 드디어 어둠이 깔리는 시간. 어머니 같은 봉사자의 인기척을 듣고서야 마지막 배설을 양껏 쏟아내는 편안함! 온 몸을 깨끗이 씻기고 나

니 그 시원해하는 모습. 가까스로 정신이 든 것 같아 물었다. "이 세상 모두 살고 끝나면 어디로 갈거지?" 라고. 서슴없이 대답하는 말. "하늘나라!"

착하고 고맙고 감사해서 다시 묻고 또 묻고 몇 번이나 되물을 때마다 확실하게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님! 이 아들의 고백을 분명히 들으셨지요? 두 손을 꼭 잡고 같이 부른 찬송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찬송인지 울음인지...

혹시나 해서 준비해뒀던 하얀 내의 한 벌, 사랑과 정성 모두어 갈아 입히고 귀가 한 것이 끝일줄이야...

다음날 19일. 새벽 5시. 형님 혼자서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 연락 받고 달려가 만난 싸늘한 육체. 새벽 3시경 간병하는 형님에게 봉사자들을 불러달라고. 같이 찬양부르겠노라고 애원. 애원했지만 형님은 이 새벽에 어떻게 미안해서 부르겠느냐고 말린 것이 천추에 한이 된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봉사자들을 찾았다는 뒷이야기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어제 저녁 가지말고 곁에 있어 줄걸...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하지 못함이 얼마나 후회스러웠는지...

정말 시설호스피스가 작게 미비하게나마 시작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욕심을 부려보며 마지막 이 아들의 소원인 시신기증은 친척들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으나 이제 하늘나라에서 고통, 눈물, 한숨이 없이 웃음으로 지내고 있을 그 아들을 기리며 묵회자님과 봉사자들, 후원의 모든 손길들에게 그것은 분명 '고통 중에 영근 찬양의 열매'였음을 고백하며 감사, 감사 드립니다.♥